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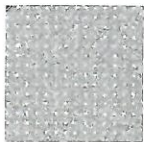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47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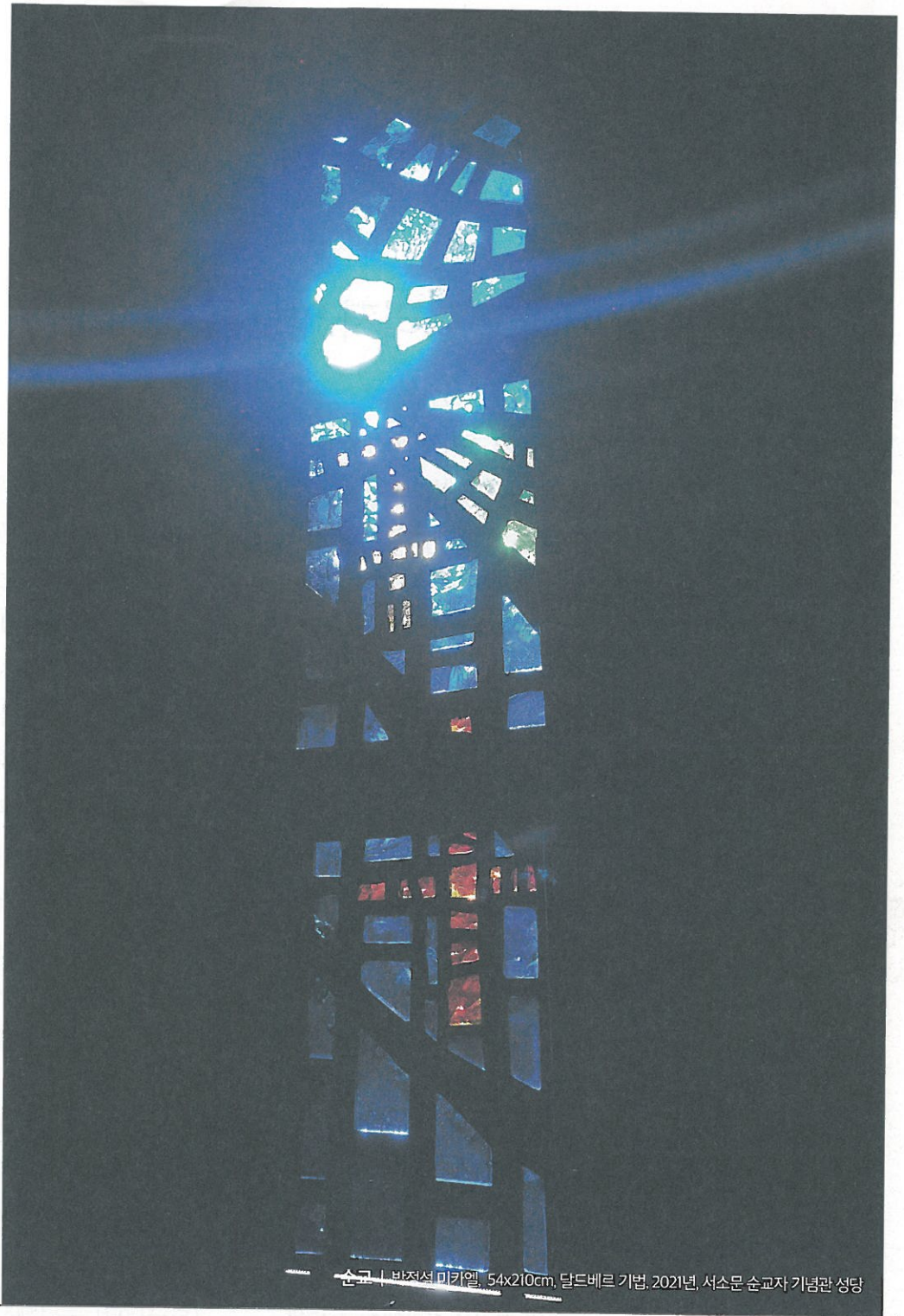
2023년 11월 5일(가해)

연중 제31주일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순교자 바티스타 미카엘, 54x210cm, 달드베르 기법, 2021년,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 성당

입당 송 | 시편 38(37), 22-23 참조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1독서 | 말라 1, 14-2, 2, 8-10

화답 송 | 시편 131(130), 1, 2, 3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높지도 않사옵나이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

○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랬나이다. 제 영혼은 마치 젖뎀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사옵나이다. ◎

○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

제2독서 | 1테살 2, 7-9, 13

복음환호송 | 마태 23, 9, 10 참조

◎ 알렐루야.

○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

복음 | 마태 23, 1-12

영성체송 | 시편 16(15), 11 참조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구요비 읍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일본에서 선교 중인 신부님 한 분이 휴가차 오셔서 들려준 이야기가 제 심금을 울립니다. 일본에서는 어디를 가나 심지어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에도 ‘서점’들이 있을 정도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말에도 등교하여 자유롭게 다양한 운동과 예능 활동을 하며 자기 계발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의 내용처럼 학교 내 폭력의 트라우마들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 나라에는 왜 없겠습니까마는 서이초등학교 여선생님의 자살이 촉발한 전국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을 위한 호소와 절규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기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인간은 미완성된 존재로서 성숙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필요로 하기에 교육자 선생님들의 가르침으로 자기를 계발하고 완성시켜 나갑니다. 이는 예지인(homo sapiens)으로서 인간의 이성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앎’에 대한 욕구에서 잘 확인됩니다. “사람들은 앎의 즐거움을 원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앎을 원한다.”(아리스토텔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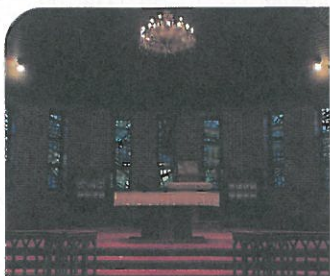
복음서에서 계시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모습 중 하나는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선생님으로서의 고귀한 품위와 권위가 아닐까요? 인류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권위는 당신의 가르침을 경청하며 따르는 백성들과 제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종의 모습(요한 13,5)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베푸셨을 때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마르 1,27)라고 하던 사람들의 반응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유다교의 동태복수법(Talion)과 폭력의 허용에 반(反)하여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율법 학자들과 달리 온전히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이루신 참된 스승이십니다!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마태 23,10)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을 당신의 모습(imago Dei)대로 창조하시고 당신을 닮은 존재(similitudo Dei)가 되라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창조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오늘도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되도록”(에페4,13)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마태 23,12)

스테인드글라스는 개별 조각들이 모여 아름다운 창을 만듭니다. 작은 조각들은 크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은 전체를 위해 하나하나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을 ‘높여’ 개별적인 존재에만 집중하면 전체적인 아름다움이 손상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낮추어’ 전체와 조화를 이루면 진정 하느님의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모여 하나를 이루는 스테인드글라스처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저에게도 필요함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고통 속에서 만난 하느님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은 종교를 묻는 질문에 하나같이 ‘천주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사를 다닐 때면 외할머니가 주신 십자고상을 가장 먼저 안방 벽에 모셨습니다. 열 살 때쯤부터 저는 매일 밤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가족 가운데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도 어머니뿐이었습니다. 뒤이어 제가 세례를 받은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 세례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아니라 버킷리스트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신다.’라고 합리화하며 더 이상 성당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저를 하느님께 이끌어 주신 분은 바로 아버지가십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느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시고,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와 저를 불러주신 거죠.

저희 아버지는 술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자상한 아버지와는 거리가 먼 아버지를 오랜 시간 많이도 미워했습니다. 자유롭게 사셨던 아버지는 결국 이순이 넘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눈물로 하루를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은총의 통로였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버려졌다고 느꼈을 때, 비로소 주님의 크나큰 사랑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 무렵 출간한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버지 곁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표현 방법이 달랐을 뿐 아버지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아버지의 뺨에 입을 맞추며, 사랑한다는 인사를 건넬 만큼 다정한 부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아가실 때를 직



한경아 아베스 | 작가

감하셨던 것일까요? 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신사동 성당의 첨탑을 보며 “성당에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성당을 찾아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녀님은 한결음에 달려와 주셨고,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느님의 사랑을 들려주셨습니다. 수녀님께 대세를 받던 날,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서글프게 우셨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니, 지옥에 가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수녀님께서 대세를 주시며, “요셉 형제님은 천국에 가실 겁니다.”라고 말씀하시자,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아버지의 얼굴이 거짓말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 손을 어렵게 움직여 성호경을 긋고,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하늘에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뒤 어머니는 유아세례 이후 60년간 이어졌던 기나긴 냉담을 풀고, 성당에 나가십니다. 아버지 덕분에 하느님을 만나게 된 저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고 신앙을 주셨으니, 제게 모든 것을 주신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한국희망재단

가난 때문에 강제 결혼의 굴레에 묶인 짐바브웨 소녀들

총명한 학생이었던 엘라나(가명)는 14세 때 나이가 3배 많은 남자의 잘 돌봐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는 엘라나를 결혼시켰지만 출산 후 홀로된 엘라나는 아이와 함께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짐바브웨는 인구의 70%가 빈곤층에 속합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여성과 소녀들은 가난 때문에 공부는 꿈도 못 꾸고 어린 나이에 강제로 결혼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어린 여성들은 가정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가사와 고된 노동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학업을 중단하기 쉽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린 나이에 강제로 임신과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합병증을 앓거나 심하게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짐바브웨에서는 미성년 여성 3명 중 1명이 18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어린 나이에 학업을 중단하고 조기 결혼한 소녀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듭니다. 하루 평균 1.9달러(한화 약 2,6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보니, 자기 딸마저 학교에 보내는 대신 부유한 가정으로 시집을 보내거나 매춘

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지구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국희망재단은 짐바브웨 소녀들이 가난으로 인한 강제 결혼에서 벗어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지 협력 단체인 WAP(Women Advocacy Project)와 함께 합니다. 재단은 WAP를 통해 짐바브웨 수도인 하라레의 4개 지역에서 취약계층 소녀들과 함께 물비누(빨래, 설거지, 손씻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WAP는 '남편이 아닌 책을 주세요.(Give us Books, Not Husbands)'라는 모임을 조직해 소녀들에게 아동 결혼의 문제를 알리고, 여아 아동 권리 인식 개선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들이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물비누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빈곤층 소녀들은 대부분 마땅한 직업이 없다 보니, 아동 결혼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면 이들이 아동 결혼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짐바브웨의 어린 소녀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작은 이와 함께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스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23년 11월 4일~12월 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은 '한국희망재단'을 위해 씁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 - '사랑의 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독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2):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최현순 테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1코린 15,12)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리라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1코린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1-11절), 죽은 이들의 부활(12-34절), 부활 때에 완성되는 인간의 구원(35-58절) 등 세 주제를 연결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17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22절)이라고 선언합니다. 부활한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분의 모습”(49절)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몸”일 것이고, 우리가 “변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53절) 그러니 우리 육신의 부활을 이해하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방이 닫혀 있는데도 나타나시고, 한번에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 앞에 발현하기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령 같은 모습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분은 제자들과 대화도 하시고 음식도 드시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의 육신은 분명히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육신은 하느님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세상과 관계를 맺기 위한 가능성이요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신, 온전한 인간으로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이제 하느님의 차원에 들어가셨을 뿐 아니라 세상과 관계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새롭게 하느님의 방식으로 세상에 계시고, “세상 끝 날까지”(마태 28,20)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와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 하느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으므로 당신을 믿는 우리 또한 당신처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1코린 15,22)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한 11,25) 그분의 모습을 지니게 될 우리의 미래 모습이 곧 우리의 최종적으로 완성될 모습입니다.(1코린 15,52 참조)

한편, 육신이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부활이 단순히 신체의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물질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온 우주가 하느님의 창조물이고, 성경은 이 창조 세계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어, 충만한 완성에 도달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에페 1,10; 콜로 1,16 참조) 따라서 이 완성된 상태가 물질과 정신의 어떤 복합적 상태에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런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묘사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듯이 그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아시는 방식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P형제님께 (2)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조동원 안토니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P형제님. 예전엔 하느님과 그분께 대한 신앙을 통해 힘을 받으셨지만, 요즘은 우주의 거대함과 신비로움을 떠올리며 위로를 얻는다고 하셨지요. 아마도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 많은 분들, 특히 젊은이들이 ‘위대한 우주’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고 설명해 주는 ‘위대한 과학’을 종교보다 더 신뢰하고 따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첫 순간 나는 너무나 놀랐다. 마치 표면적인 원자 현상을 통해 그 배후에 깊숙이 숨겨진 아름다운 근원을 들여다본 느낌이였다. 이제 자연이 그 깊은 곳에서 내게 펼쳐 놓은 층만한 수학적 구조들을 좇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자 나는 거의 현기증을 느낄 지경이였다.” (하이젠베르크, 《부분과 전체》, 유명미 옮김, 121)

20세기 초 물리학자들은 원자의 구조와 안정성을 설명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많은 물리학자들, 특히 젊은 과학자들이 이 어려운 일에 도전했는데 하이젠베르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던 어느 날 찰나의 깨달음과도 같은 섬광이 그의 머리를 스쳤고, 이를 따라가며 그는 마침내 훗날 양자물리의 중요한 한 축이 될 행렬역학과 불확정성 원리의 기초를 스케치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표현을 빌면, 이때 그는 자연이 펼쳐놓은 그 아름다운 수학적 구조 앞에 넋을 잃고 경탄합니다.

자연의 질서는 참으로 오묘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들여다보게 된 사람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움, 경탄은 과학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시인은 시인으로서, 화가는 화가의 눈으로 자

연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경탄하고 이를 시와 그림에 답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6번은 또 어떻습니까? 자연의 아름다움과 힘, 그에 대한 놀라움과 찬탄의 감정이 곡 전체에 실려있지 않습니까? 나아가 과학을 모르고 예술에 문외한이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자연 앞에서 ‘자연스럽게’ 놀라워하고 감동합니다. 그러한 경탄과 감격은 사실 과학에 앞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학은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느끼게 해줄 따름이지요.

과학이 나오기 전부터 인간이면 누구나 자연 앞에서 느끼던 경탄의 감정, 그것은 아마 하느님께서 우리 존재 깊숙이 넣어주신 그분의 흔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처음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소감’을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앞서 창조주신 그분께서 당신의 작품을 보시며 스스로 ‘경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자연에 대한 경탄이 하느님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연을 나름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풀이하는 과학이 그 자연을 만드신 분께 대한 신앙에 어긋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고 놀랄수록, 과학을 알면서 감탄할수록 그렇게 오묘하게 세상을 지으신 분을 찬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과학을 알면 알수록 신앙에 회의적인 경우가 많지 않느냐고, 형제님은 제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한편으로는 ‘네’ 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아니오’입니다.

하느님의 계시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가?



방종우 아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교회는 왜 변하지 않는 걸까? 언제까지 저토록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인가? 이제는 좀 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세계주교시노드를 앞두고 다섯 명의 추기경단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던진 다섯 가지 질문 중 첫 번째가 바로 이러한 의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직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적이고 인간학적인 유행의 변화에 따라 하느님의 계시가 과연 재해석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교황님께서서는 “재해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구체화하십니다. 만약 이 단어가 “더욱 잘 해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재해석”이 계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교도권과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교황님께서서는 진리에 대한 하나의 정식이 고립되어 제시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십니다. 동일한 교의라 할지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풍요로운 복음이 지닌 여러 측면들을 드러내고 펼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하느님의 계시가 불변하고 언제나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을 상기해 왔습니다. 다만, 하느님의 계시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회는 성서해석자들과 신학자들의 작업을 통해 이를 더욱 “잘” 표현하도록 애써왔

습니다. 이에 교황님께서서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시이니 이를 지속적으로 식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앞선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닫혀있는 듯한 교회, 변하지 않는 교회가 때로는 의문을 야기하지만 보다 더 원천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교회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교회는 하느님이 임재하시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된 교회가 아닌 그저 인간이 세운 공동체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시가 유행에 따라 변화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진리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단순한 의심에서 나아가 하느님의 계시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며 교회가 왜 그렇게 이야기 하는지, 어떠한 논리로 그것이 정당화가 되는지를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성행위, 낙태, 동성애 등과 관련한 여러 사회적 목소리들이 교회가 문을 열어야 하지 않냐고 다그치곤 합니다. 때론 구시대적 사고에 갇혀있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없으며 오히려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알려주신 구원 목적을 향한 표지들을 변함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의 어린양도 놓치지 않고자 더 나은 표지판이 있는지 겸손히 탐구할 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표지판은 더욱 견고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시는 그 자리에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모든 형제자매를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11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교황>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교황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시면서 맡겨진 양 떼와 동행해 나가시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목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내용 수정·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천주교 용인추모공원 내 사용 기한 만료 분묘 개장 알림

천주교용인추모공원 내 20년 사용 기한이 만료된 기간제 묘지의 분묘 개장이 2023년 12월 1일 이후 시작될 예정입니다. 1991년부터 1993년 12월 말일까지 안장된 기간제 묘지 중 현재까지 개장하지 않은 분묘를 대상으로 하오니 개장 대상에 포함된 분묘의 묘주 및 가족들께서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88-9769 천주교 용인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18년 11월 12일 김휘중 요셉 신부(31세)
- 1950년 11월 9일 오연희 마리아 신부(40세)
- 1952년 11월 12일 최문식 베드로 신부(71세)
- 1973년 11월 9일 왕송석 야고보 신부(32세)
- 2004년 11월 8일 김몽은 사도 요한 신부(77세)

교구청 알림

큰사랑 봉사회 봉사자 모집

대상: 기도 생활과 봉사 활동에 관심 있는 분
문의: 02)727-2078, 010-6234-6910 직장사목팀

11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11월6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 채플 /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11월20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이성인 안토니아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가톨릭 시니어 후원회 11월 월례미사

성가와 함께하는 찬양 미사
때, 곳: 11월7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사 주례: 노인사목팀 담당 사제
문의: 02)727-2385, 6 노인사목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작품전

주제: 절규(울부짖는 지구, 새 하늘 새 땅)
전시 작품: 환경 관련 사진 50점, 캘리그래피 30점 등
때: 11월10일(금)~14일(화) 9시~18시(5일간)
곳: 1898광장(명동성당 입구 지하 1층)
주관: 한국(서울)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자세한 내용은 한국평단협홈페이지(www.clak.or.kr) 참조 / 문의: 02)777-2013

세계자살유가족의 날 기념행사

대상: 자살유가족 및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행사: 1부 10시 미사(유경춘 주교 집전), 2부 11시 특강(정현채 (전)서울대학교 의학 박사)
때, 곳: 11월18일(토) 10시~1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 신청: 홈페이지(3079.or.kr) 참조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11월25일(토) 15시, 가톨릭회관 7층

제56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때, 곳: 11월16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명동) /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주례 및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및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1)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접수안내
때: 11월18일(토), 11월19일(일), 11월28일(화)
곳: 황성 풍수원, 최양업 신부 가족의 묘, 홍천성당
신청: 11월6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4만5천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2)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안내
때: 매월 첫째주(화) 11월7일, 12월5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3 영성심리리카데미 / 문의: 02)727-2126
영성심리특강(송봉모·오용진·홍성남·김하중 신부), 이 지나 작가의 영적글쓰기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강민경, 문선미 2인전: 1전시실
가톨릭사진가회 정기회원전: 2,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1일(수)~9일(목)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명동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서울대교구 신자(만 65세 이하)
교육기간: 11월29일부터 매주(수) 10시 / 16주 과정
곳: 가톨릭회관(명동) / 회비: 10만원
11월21일(화)까지 접수 /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 참조
문의(신청):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북녘 본당) 미사
때, 곳: 1391차 미사 11월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분: 덕원차치수도원구 덕원 본당, 고원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2023 한반도평화나눔포럼
주제: 한반도 화해와 평화에 이르는 길
때: 11월18일(토) 10시 / 문의: 02)3789-0815
곳: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진리관(혜화동)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harepeace.net) 참조

인문단체 알림

모임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오사카
회비: 120만원(3박4일) / 문의: 010-3645-9028

글라셋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때, 곳: 11월12일(일) 11시~15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회비 없음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강사: 맹진화 신부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3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1월 '쉽' 침묵 피정(성령선교수녀회)

대상: 만40세 이하 미혼 여성 / 회비: 4만원
때, 곳: 11월10일(금) 20시~13일(일) 10시, 명륜동
문의: 010-2691-4895 (문자 접수)

말씀여행 피정(도미니코 수도회) / 문의: 010-2034-0042

때, 곳: 12월15일 19시~17일 점심, 도미니코 수도원(강북구 수유동) / 강사: 안소근 수녀
회비: 20만원 / 접수: 0808dominic@naver.com

제주 평화의 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대상: 개인(본당 전신자 피정, 구반장 피정)
때: 11월9일~11일(행복 피정)·11월17일~19일
곳: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11지구 역삼동성당 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0분(미사 19시), B1 경환당
(주차 가능) / 문의: 010-4667-3792 서 카타리나

11월10일 김중국 신부 11월17일 성모찬송 촛불기도

12서초지구 성령기도회

때: 매주(월) 14시~17시 / 문의: 010-7393-7924
곳: 서초동성당 대건관 1층(주차 가능) / 미사, 안수

11월6일 변우찬 신부 11월27일 박효철 신부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 문의: 010-7374-3217

2024년 1월1일~9일 이스라엘(8박9일) / 회비: 475만원
2024년 6월7일~15일 이스라엘(8박9일) / 회비: 465만원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곳: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수행생을 위한 기도의날 11월16일(목) 10시~15시 / 식비 1만원
대림 피정 12월5일·12일·19일 매주(화) 10시~16시
문의: 02)990-1004
단식 피정 11월21일~25일(4박5일) / 010-9741-3260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11월16일~18일, 11월21일~23일, 11월26일~28일, 12월1일~3일, 12월9일~11일, 12월15일~17일, 2024년 1월20일~22일(눈꽃산행)
연말연시 특별 피정 12월29일~1월1일(눈꽃산행)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교구 성지순례-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전례 탐방

때: 12월2일~4일(수도원-대구 17성지), 2024년 3월1일~4일(수도원-부산 8곳-마산 6곳) / 출발: 명동(대형 버스)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연옥영혼을 위한 기도는 천국에 '천당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 찬양: 고영민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회비: 1만원
때, 곳: 매월 둘째주(토) 11월11일 14시~18시, 구산성지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매주교리에 기도 일일 피정·11월 토요일 낮 치유 대피정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1) 매주교리에 기도 일일 피정
매주교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 안수(중식 무료)
때: 11월6일(월) 10시~16시 / 강사: 이창진 신부
2) 토요일 낮 치유 대피정
때: 11월11일(토) 9시30분~17시30분 / 강사: 김중국 신부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미사 안수(중식 무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연말연시(해돋이·해돋이·눈꽃산행) 12월30일~2024년 1월2일, 한라산 자연순례 11월27일~29일, 12월8일~10일, 12월16일~18일, 눈꽃산행 1월6일~8일, 1월12일~14일, 1월19일~21일, 1월27일~29일, 2월3일~5일, 2월14일~16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골롬반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단기선교체험

문의: 010-3817-0567 골롬반평신도선교사센터
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3세~39세 청년 신자
때, 곳: 11월12일(일)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2) 2024 골롬반 단기선교체험(필리핀)
때, 곳: 2024년 1월16일(화)~23일(화), 필리핀 마닐라 일대(7박8일) / 항공료, 여행자 보험만 본인 부담
대상: 24세~39세 신자(선착순 5명) / 접수: bit.ly/SIM2024PH

교육

성물·묵주조각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미사반주 및 전례를 위한 오르간 교육 / 문의: 010-9468-7660

곳: 대치2동성당 / 주최: 대치2동오르간아카데미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반주장구 매주(목) 13시30분 / 회비 있음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입학 / 문의: 054)338-0530

전학 관련 사항은 교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설명회 11월25일(토) 14시 대상: 현 초6
겨울진학캠프 2024년 1월13일(토)~14일(일)

성가발성 노래교실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장 / 문의: 010-9842-8818
곳: 시스피나음악원(주최, 신촌)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세미나(꽃동네 기도회)

때, 곳: 11월18일(토) 11시~19일(일) 16시, 음성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 대상: 모든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
회비: 7만원(사전 접수자만 피정 가능) / 010-5490-5345

가톨릭노동장년회 풍물패 '풍울림'

장구, 북, 팽과리 같이 배우고 싶은 분 초대합니다
때, 곳: 매주(월) 19시, 노동사목회관
회비: 3만원(수시 모집) / 문의(접수): 010-3239-9308

미국 겨울 스쿨링 프로그램(7주) / 문의: 02)2258-8983

대상: 초5~고1 / www.oakinternational.co.kr
1월 출발 / 미국보딩스쿨 스쿨링 및 단·장기 입학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엔젤스 주일학교 학생·교사·봉사자 모집

엔젤스 주일학교는 미사 참례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앙교육을 돕는 발달장애인 주일학교입니다
학생 모집 대상: 초등~성인기 발달장애인(지적 장애·자폐성 장애) / 교사 및 일반 봉사자 모집: 교리 교사 또는 활동 보조 봉사 가능하신 분
때, 곳: (일) 15시~17시, 잠원동성당
문의: 010-9942-2590 (문자) 잠원동성당

2024년 전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편입 학생 모집 / 문의: 02)3147-8781
사회복지학(석사과정) / 학과: 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중독 포함), 노인복지(장기요양 포함), 정신건강복지(발달장애 포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1급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 자격 획득
때: 10월30일(월)~11월12일(일) / 면접: 11월24일(금)
곳: 서울성모병원 내 성의회관(서초구 반포대로 222)
홈페이지: welfare.catholic.ac.kr

2024학년도 전기 2차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2월4일(월)~15일(금) / 전형일: 2024년 1월5일(금)
곳: 최양업홀(전철 2호선 중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704(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석사 과정(5학기) 오르간, 작곡(CCM 작곡), 합창지휘전공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4년 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월27일(월)~12월4일(일)-전형일 12월9일(토) /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문의: 02)705-8668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 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영성, 철학상담

제23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cbccamp.com)

미국 LA영어캠프(3주)	2024년 1월10일~30일 / 디즈니랜드, UC버클러, 스탠포드·UCLA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4주)	1월10일~2월3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 마나가하섬, 정글투어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모집

서초동성당 헬름 오케스트라·라이어 전공자 모집
 대상: 편곡자, 현악기, 관악기, 성악 / (일) 21시 미사
 접수: cafe.naver.com/caelumorch / 010-4002-3074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 모집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광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남녀 평신도
 11월30일까지 접수 / 010-5399-3371, 010-9572-8282

새남터성당 교중미사 성가단원 모집
 순수 봉사 / 대상: 성가를 봉헌할 남녀 교우
 연습: 매주(일) 11시, 교중미사 전후 1시간씩(10시~13시) / 문의: 010-5470-6773

미사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11월11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53-8765
 미사: 김영훈 신부(사목국 교육지원팀)
 때, 곳: 11월16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군중교구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대상: 군(軍) 성당 신자 및 민간교구 신자 / 02)749-1921
 집전: 서상범 주교(군중교구장) 외 군중사제단
 때, 곳: 11월8일(수) 10시, 국립현충원 현충관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 유가족 위로미사
 대상: 2022년 10월 이후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 연령회원 / 문의: 02)772-9090
 때, 곳: 11월10일(금) 오후 3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클래식기타와 함께 하는 미사와 연주회
 미사: 김경희 신부, 우대근 신부 공동집전
 때, 곳: 12월2일(토) 19시, 왕십리성당
 기타지도: 이화진 / 지휘: 윤태원
 문의: 010-9297-1543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

안내

독서 콘서트(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미디어종사자들이 만드는 가케협독서콘서트는 독서와 음악을 통해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습니다
 대림·사순 특강이나 신자 재교육을 원하는 본당은 연락 주십시오 / 문의: 010-9105-2841 한순애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하늘의 문 성당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켓,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깃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2023년 가톨릭성가페스타 축제
 때: 11월18일 가톨릭성가 축제 / 티켓: 전석 2만원
 곳: 서소문성지 콘솔레이션홀 / 문의: 010-5245-2848
 심준보(서울대교구성음악위원회·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13시	가톨릭시니어합창단 연주회 / 지휘: 이상희
16시	살루테콰이어 연주회 / 지휘: 강지미
17시30분	가톨릭 성가대 코랄콘서트

유관단체 알림

다승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성가복지병원 직원 모집 / 문의: 02)940-1503
 분야: 내과전문의 1명, 시설과-전기·기관기사 자격증 소지자 1명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재무회계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 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명일동성당 관리인 모집
 분야: 관리인 1명(계약직)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시설물 관리, 미화, 기타 방호 업무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1월19일까지 방문·우편(우 05235, 강동구 양재대로 156길 28) 접수 / 이메일(belle14@seoul.catholic.kr)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홍보담당 직원 모집
 분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홍보담당 직원 모집 1명
 1년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 / 11월17일(금)까지 접수
 대상: 홍보업무 경력자(홍보컨텐츠 제작, 언론홍보 등)
 문의: 02)727-2234 재무행정팀 이효림
 세부사항 필히 참조-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알림참여-채용공고)

문정동성당 사무장 모집
 분야: 사무장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10년 이상된 교우로 사무 행정, 회계 업무 및 PC 가능한 분 / 이메일 문의 11월16일(목)까지 이메일(htw5781@seoul.catholic.kr) 및 우편·방문(우 05798,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37가길 14) 접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서울대교구청 전산정보실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개발언어 JAVA, C#(닷넷), DB 관련(PostgreSQL, MSSQL) 업무 가능한 분 / 이메일 문의
 분야: 교구사무원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1차 서류 전형, 2차 구술시험, 3차 최종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11월12일(일)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청 정의평화위원회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사회교리의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
 분야: 사회 현안 자료, 조사연구, 일반 행정 업무 담당 교구사무원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11월12일(일)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11월12일(일) 12시30분	수녀원(명창동)	010-8852-9817 황 수산나 수녀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성 마리아 재속회	수시	양성소	02)980-0385, 010-6462-0385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11월11일(토) 14시~12일(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문자 문의)
성 베네딕도회 요섭 수도원	수시	수도원(남양주 별내)	010-4241-1210 성소 담당
성심수녀회	11월18일(토) 14시~17시	본원(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서울관구)	11월12일(일) 10시~15시	서울관구 본원(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010-5830-3217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11월18일(토) 15시	수도원	010-6608-3217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2호선 건대입구역)	010-7197-1390 효주 수녀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시	상의 후 결정	010-9353-1773 김 토마스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게재된
시간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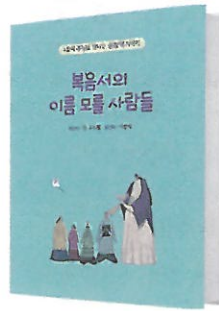


신간

교황 프란치스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메시지

교황 프란치스코 지음
위즈앤비즈 | 216쪽 | 1만3천원
문의: 031)986-7141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러시아의 첫 공격이 시작된 날로부터 끊임없이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바티칸 전문 기자인 프란체스코 안토니오 그라나는 2022년 한해 동안 교황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서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요구해 온 메시지를 취합하여 책으로 엮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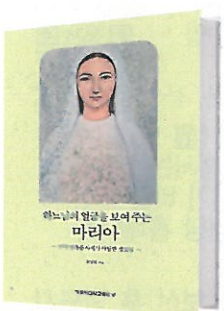


신간

복음서의
이름 모를 사람들

장오브링 지음
기본소식 | 176쪽 | 1만5천원
문의: 02)762-1194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애정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작가 장오브링은 성경 속 이름 없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뵈는 기적을 누렸는지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을지를 놀라운 상상력을 통하여 눈앞에 그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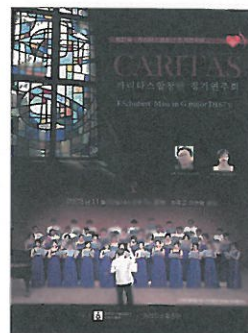


신간

하느님의
얼굴을 보여 주는
마리아

최영희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472쪽 | 2만2천원
문의: 02)740-9718

이 책은 구약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현대 교황님들의 회칙 등을 통하여 하느님의 얼굴을 보여 주고 있는 마리아를 살피고자 한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순교복자회의 창설자인 방유룡 신부의 영성(靈性)을 통해 그가 사랑한 마리아 성모님을 살펴본다.



연주회

제21회
카리타스합창단
정기연주회

문의: 010-3727-2214(단체 관람)
입장권: 전석 1만원

올해로 창단 24주년을 맞이하는 카리타스합창단에서 코로나 이후 첫 연주회를 11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이문동성당에서 진행한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1부 슈베르트 미사곡 G장조와 성가곡, 2부 한국 가곡과 외국 민요 메들리 등 멋진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이다.



페스티벌

2023 나루커넥트
클래식 페스티벌

문의: 02)2049-4700
입장권: 전석 2만원
인터파크티켓(tickets.interpark.com)에서 주보
할인(50% 할인)으로 구매하시고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확인 후 티켓 배부

광진문화재단과 커넥트 아츠 페스티벌이 함께하는 <2023 나루 커넥트 클래식 페스티벌>이 11월 17일(금)까지 나루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클래식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깊어가는 가을을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

입장권: R석 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4만원
문의: 031)738-1492, 010-4270-3102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1부로 2명 10% 할인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 유일의 아카펠라 소년합창단으로 교황 비오 12세(Pius PP. XII)께 '평화의 사도' 명을 받은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이 12월 19일(화)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을 진행한다.



제2시대문·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진현구(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안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회, 청년회)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2024년도 사목위원

직책	이름(세례명)
회장	서태일(스테파노)
부회장	정원근(다니엘)
부회장(남성총구역장)	박영철(요아킴)
부회장(여성총구역장)	명귀애(테레사)
총무	문성호(토마)
기획분과장	전대훈(이나시오)
전례분과장	석인숙(루시아)
교육분과장	김순애(마리아)
선교분과장	김재희(릿다)
생명환경·가정분과장	고애경(베로니카)
주일학교분과장	박명규(제레온)
청년분과장	이상현(사도요한)
사회사목분과장	이재원(예로니모)
노년분과장	정남숙(세실리아)
재정분과장	박기운(미카엘)
시설분과장	변경섭(사도요한)

◎ 2024년도 사목위원 인사

일시 : 11월 5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 그동안 수고해주신 사목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새로 임명되신 분들께서는 하느님의 은총 속에 본당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유아세례 : 11월 5일(주일) 오후 5시
- ◎ 예비신자 교리반은 11월 5일(주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 ◎ 연례회 미사 : 11월 7일(화) 오전 10시
- ◎ 오라테 성가 발표회
일시 : 11월 11일(토) 오후 7시 30분 / 대성전
- ◎ 여성구반장 회합 : 11월 12일(주일) 12시 / 소성전
- ◎ 구역성지순례 단체사진 시상식(형제참여도)
일시 : 11월 12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중
* 9월 10일~10월 28일까지 구역별로 진행한 성지순례에서 형제들의 참여도가 높은 3개 구역을 시상합니다.
- ◎ 수험생 축복 미사 : 11월 14일(화) 오후 7시
- ◎ 수험생 부모 하루 피정
일시 : 11월 16일(목) 오전 8시 40분 ~ 오후 2시
문의 : 보좌신부 (010-3854-1317) / 회비 : 10,000원
- ◎ 남성총구역 족구대회
일시 : 11월 19일(주일) 오후 2시 ~ 오후 5시
장소 : 서대문 청소년 수련관
문의 : 남성총구역장 (010-4913-1158)
- ◎ 연례회 남·여 회원 모집
문의 : 루시아 회장 (010-6288-1683)

◎ 2023년 중고등부 가을소풍

일시 : 11월 12일(주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8시
장소 : 롯데월드 / 회비 : 30,000원
대상 : 중등부 1학년 ~ 고등부 2학년
접수 : 학년 담당 선생님 전화 or 카톡
문의 : 사도요한 교감 (010-4041-3769)

* 11월 12일(주일) 10시 30분미사는 없습니다.

◎ 문화학교 12월~2월 학생모집(주일학교)

수강과목 : 바이올린, 통기타, 우쿨렐레, 미술, 한글캘리그래피
접수기간 : 재접수 - 11월 15일(수) ~ 19일(주일)
신규접수 - 11월 20일(월) ~ 24일(토)
개강 : 12월 2일부터 / 매주 토요일 수업
접수 및 문의 : 카카오톡



◎ 2024년 각 단체 예산 신청서를 11월 19일(주일)

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신청서는 맑은고딕 서체, 11포인트, 엑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예산 신청서 양식은 연희동성당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료실에 있습니다.

◎ 부활 판공성사, 성탄 판공성사를 보신 후 반드시 성사표를 제출하시거나 사무실에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교적에 성사 이력이 3년 동안 입력되지 않으면 냉담자로 처리됩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10. 29)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남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43	834 (40.8%)	802 (39.3%)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3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10월 23일 ~ 29일)

곽선모 오천원 이정렬 이십만원
조상품 이십만원 윤지원 오만원
류제호 오만원 익명 삼십육만원
강경탁 오십만원 익명 오만원
신옥분 삼만원 함영동 일만원
故 김경식 요셉 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30주일)

교 무 금 12,147,000원
주일헌금 5,774,000원

입당 329 봉헌 332, 216, 211 성체 178, 334, 162 파견 229



주 님 게 영 혼 을 당 신 의 평 화 로 지 켜 주 소 서